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GDP 3분기, 2021년 이래 가장 빨라... 연율로 4.9%
- Bloomberg: '미국 경제 지나치게 가열된 것 같다'
- TradingEconomics: 9월 미 내구재 신규 주문 전월 대비 4.7% 상승
- WSJ: 신임 하원의장 Mike Johnson의 업무들: 섣다운 처리와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 Bloomberg: 미 국방 부문 지출이 미 경제 복돋아... 2019년 이래 가장 빨라

[미국 금융]

- Bloomberg: 주춤하던 달러, 올해 계속 상승세... 국채 수익률 상승
- Bloomberg: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CEO인 Ted Pick은?

[의료]

- Bloomberg: 미 근로 연령층 절반이 의료 비용에 부담 가져

[자동차 파업]

- Bloomberg: 포드, UAW와 잠정적 고용 계약에 합의

[에너지]

- WSJ: 미 오일 비축량 늘어난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기업들, 공급망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에 투자
- WSJ: 새 온라인 반품 비용, 연말 대비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도
- Bloomberg: 마스터카드, 다음 분기 실적 떨어질 것으로 보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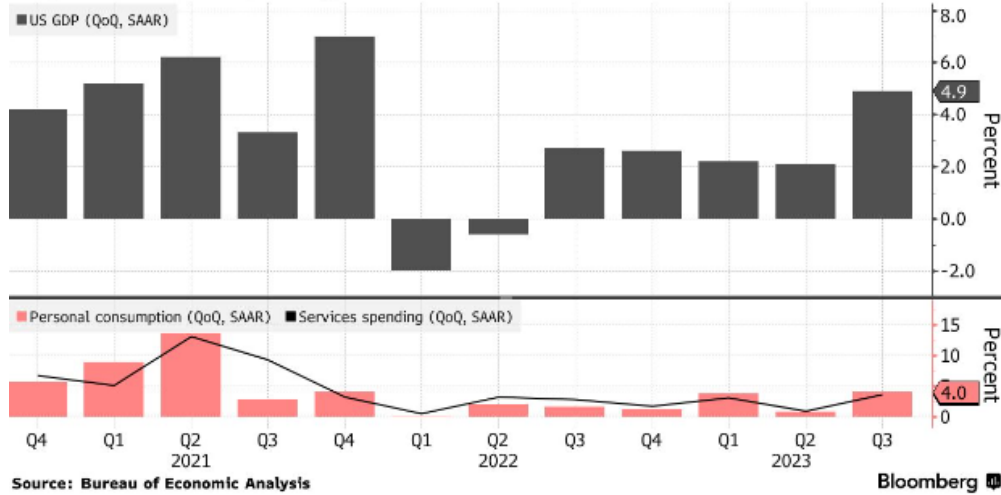
[미국 경제]

Bloomberg: US Economy Grew at a 4.9% Pace Last Quarter, Fastest Since 2021

미 GDP 3분기, 2021년 이래 가장 빨라... 연율로 4.9%

- 한마디로 소비 지출의 폭발적인 성장 탓이다. 3분기 미 GDP는 2분기의 두 배 넘게 연율 4.9%로 기록했다.
- 또한 미 경제 주요 성장 동력인 개인 지출은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빠른 4% 성장했다.
- 미국은 높은 물가와 차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 예측자들의 예상과 침체 우려를 떨쳐 내고 있다.
- 이러한 회복력의 동력은 고용 시장의 지속적인 강세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가계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US Economy Expands by Most in Almost Two Years
Surge in consumer spending fueled the 4.9% annualized advance



Indicator	Actual	Estimate
GDP	+4.9%	+4.5%
Personal consumption	+4%	+4%
PCE price index, excl. food & energy	+2.4%	+2.5%

Bloomberg 기사

Bloomberg: The US Economy Is Running Hot. Maybe Too Hot
‘미국 경제 지나치게 가열된 것 같다’

- 미국 경제는 탄력적인 일자리 성장과 가구의 부 증가, 인플레이션 완화 덕분에 소비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버티고 있다.
- 자신의 경제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인플레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희소식이다.
- 결정적인 둔화 신호를 보일 때까지 파월 연준 의장과 관리들은 고금리 유지와 심지어 더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것이다. 현재의 강력한 경제 성장세가 연준의 추가 긴축 정책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TradingEconomics: New orders for manufactured durable goods in the United States surged by 4.7% month-over-month
9월 미 내구재 신규 주문 전월 대비 4.7% 상승

- 2023년 9월 미국의 내구재 제조업 신규 주문이 8월 대비 4.7% 증가했다. 8월의 0.1% 감소에서 크게 반등했으며, 시장 예상치인 1.7% 증가율 크게 상회했다.

- 이는 내구재 주문이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7월 이래 가장 큰 상승세였다. 주로 운송 장비 수요 강세가 주도했다.
- 운송장비 주문은 민간 항공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12.7%로 급증했다.

TradingEconomics 기사

WSJ: New Speaker Mike Johnson's To-Do List: A Looming Funding Deadline and Israel, Ukraine Aid

신임 하원의장 Mike Johnson의 업무들: 섣다운 처리와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 공화당의 하원의장이 전격 경질 된 이후 22일간 내분에 쌓여있던 공화당이 4선의 루이지애나 출신 Mike Johnson 의원을 내세워 하원에서 과반수로 하원의장에 뽑혔다.
- 그는 친 트럼프 대통령계 인물로 알려졌다.
- 그는 앞으로 3주간으로 다가온 정부 섣다운과 관련된 연방정부 자금 지원 마감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요청, 이미 만료된 농업 관련 법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공화당 당내의 단결력이 시험대에 오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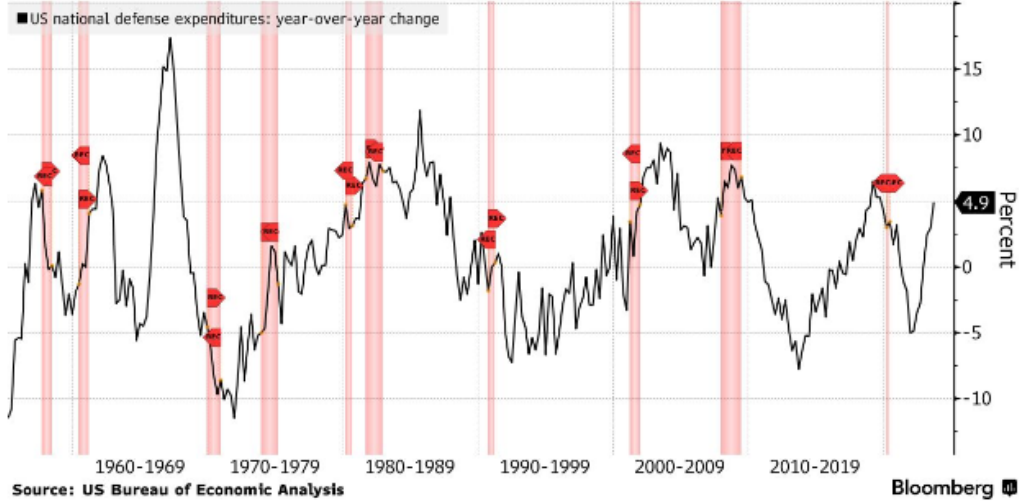
WSJ 기사

Bloomberg: Defense Spending Boosts US Economy With Fastest Rise Since 2019

미 국방 부문 지출이 미 경제 복돋아... 2019년 이래 가장 빨라

- 미 국방 지출이 2019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금리인상에 따른 차입 비용증가로 인한 기업 투자 둔화를 상쇄하고 있다.
- 올해 9월까지 1년동안 미 국방 부문 지출이 4.9% 상승했다. 연방경제분석국의 분기별 GDP 분석에 따른 것이다.
- 국방 지출은 2020년 하반기에서 2022년 까지 줄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 증가가 무기 지출은 늘리도록 지원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US Defense Spending Rises Most Since 2019 Spreading wars help boost US economy amid higher interest rates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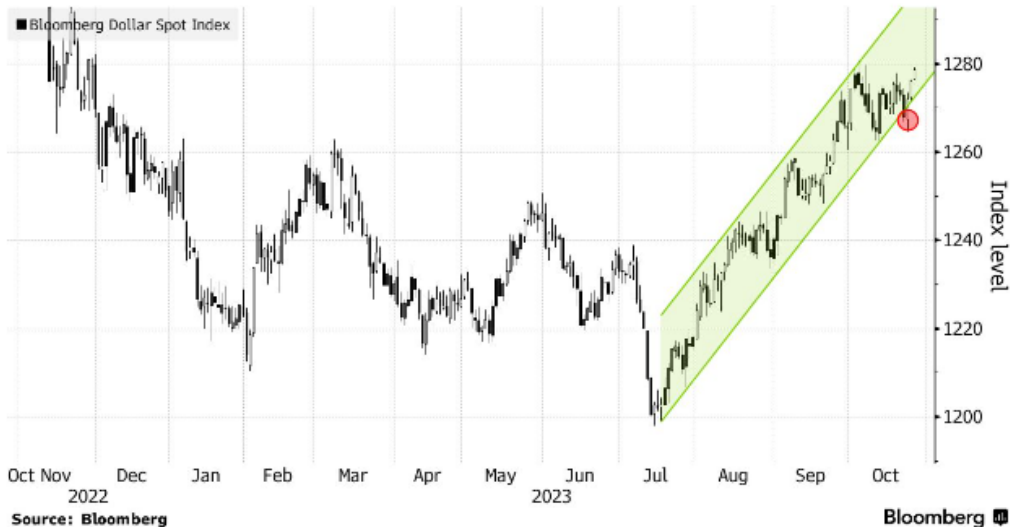
[미국 금융]

Bloomberg: Dollar Resumes Climb Toward 2023 Peak as US Yields Push Higher

주춤하던 달러, 올해 계속 상승세... 국채 수익률 상승

- 랠리가 끝날수 있다고 예상되던 달러가 며칠만에 다시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
- 달러의 최근 상승세는 국채가 폭락한데 따른 것이다. 즉, 국채 경매에서 수요 부진으로 국채 공급 과잉에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 주요 통화에 부담을 주었는데, 엔화가 달러당 150을 넘어섰고, 호주 통화는 1년만에 가장 약세로 하락했다.

Dollar Bounces Back After Technical Break



Bloomberg 기사

Bloomberg: What Happened Inside Morgan Stanley After Ted Pick Was Named CEO**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CEO인 Ted Pick은?**

- 그가 CEO로 선출된 이후 회사의 방향성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전임 CEO의 방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가 그를 만장일치로 CEO로 뽑은 것은 어려웠던 턴어라운드 업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실적, 리스트 관리, 고객 관리, 그리고 기술 감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리고 그는 금융 위기 이후에 모건스탠리의 주식 트레이딩 부분을 개선했고,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채권 부문을 복구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의료]**Bloomberg: Half of Working-Age Americans Struggle to Afford Medical Care****미 근로 연령층 절반이 의료 비용에 부담 가져**

- 고물과 상황이 맞물려 미 의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 성인들은 의료 비용 지불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다.
- 오늘 Common Wealth의 관련 발표에 따르면 근로 연령층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올해 의료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무의료보험자중에 3분의 2 이상은 의료 비용 지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의료보험자중 43%가 의료 비용 지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같은 비율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건강 플랜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더 높았다. 이로 인해 40%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미루거나 처방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자동차 파업]**NYT: U.A.W. and Ford Reach Tentative Contract Agreement****포드, UAW와 잠정적 고용 계약에 합의**

- 지난 수요일, 노동조합 관계자는 전미 자동차 노조(UAW)와 포드가 새로운 4년짜리 잠정적인 근로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 또한, 이번 합의 내용에는 4년에 걸친 25%의 임금 인상과 물가를 고려한 임금 조정, 연금과 직업 안정성 확보 그리고 파업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고 말했다.

- UAW를 이끄는 Shawn Fain는 노조 협의회가 이번 합의 내용을 수락한다면, 포드에서 파업을 진행 중인 5만 7천여명의 노조원이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드는 이에 대해 UAW와 잠정적인 고용계약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면서 짧은 성명만을 발표했다.
- UAW는 GM 그리고 스텔라티스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NYT 기사

[에너지]

WSJ: U.S. Oil Inventories Increase Amid High Production 미 오일 비축량 늘어난다

- 어제 수요일 EIA에 따르면, 지난주에 미 원유 비축량이 예상치보다 많이 증가했다. 이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상업용 원유 비축량은 지난주에 1백40만 배럴 증가해 4억2천1백10만 배럴을 기록했으며, 5년 평균보다 약 5%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EIA는 밝혔다.
- 또한 미국 원유 생산량은 하루 1천3백20만 배럴로, 이달 초에 기록한 최고치를 유지했다.
- 뉴욕 상업 거래소(NYMEX)의 내달 원유 거래 가격은 1% 하락한 배럴당 83달러를 기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Companies Doing More to Reinforce Supply Chains With Reshoring, Tech 기업들, 공급망 강화를 위해 리쇼어링에 투자

- 오늘 목요일 14개국 11개 산업에 걸쳐 1천2백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Accenture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 첫 번째, 단독소싱(Sole sourcing)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73%가 향후 3년 안에 멀티 소싱 전략(multi-sourcing strategies)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해 현재보다 43% 증가했다.
- 두 번째,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65%가 지역 소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38%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 셋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 이전,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화 등의 비즈니스 회복력에 대한 평균 투자 금액이 1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 금액의

절반이 리쇼어링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of respondents who say they will spend....



Source: Accenture, "Resiliency in the 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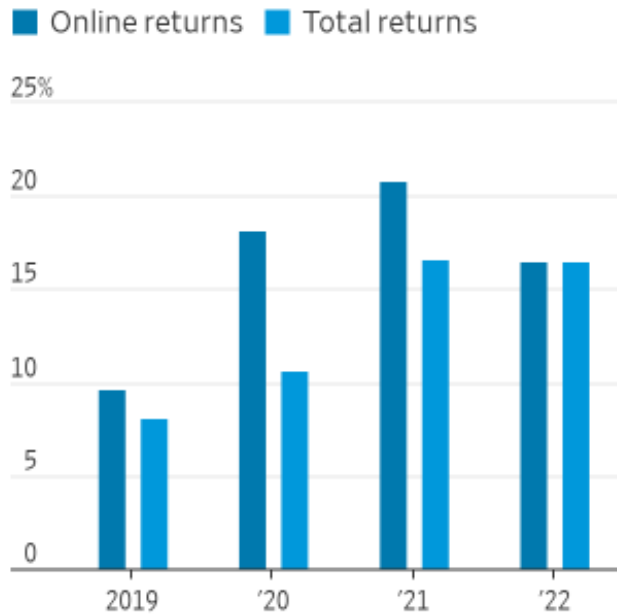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Those New Online Returns Fees Are Driving Away Shoppers 새 온라인 반품 비용, 연말 대비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도

- 온라인 구매자들이 물건을 반품할 때 지불하는 새로운 수수료로 인해 소매업체들이 원했던 대로 반품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 연휴를 앞두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조사에 답한 물류업체의 약 3분의 1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물건을 반품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뒤로 구매자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 리서치 기업 Gartner의 분석가인 Tom Enright는 판매 증가와 더불어 반품이 증가하는 연말 연휴에 이번 새로운 반품 비용은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 전미 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업체들은 연말 시즌에 판매된 상품 중 약 18%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고, 온라인 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매업체들이 배송 상품에 많은 수익을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에 소매업체들은 반품에 추가 요금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Return to Sender

Percentage of items sold online and overall that are returned.



Source: Apriss Retail, National Retail Federation

WSJ 기사

Bloomberg: Mastercard Reports Higher Consumer Spending With Expenses Rising

마스터카드, 다음 분기 실적 떨어질 것으로 보다

-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강한 소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해당 페이먼트 네트워크(the payments network)가 다음 분기에 분석가들의 예측보다 낮은 수입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마스터카드 주가는 떨어졌다.
- 마스터카드 이용률이 3분기 12% 상승해 1조 8천 8백달러에 달했음에도, 마스터카드의 4분기에 분석가들의 전망보다 14% 낮은 수입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 마스터카드의 사업운영비는 기업인수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올해 약 2% 상승해 27억 달러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물가 잡히고 있다지만...美 소상공인들 "최우선 관심사"

미국에서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남아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3.7%까지 내려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푸드점 치폴레와 디즈니랜드의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평탄치 않을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